

전남도, '대한민국 글로벌관광' 중심에 선다

9개 부처 연계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선정 국비 132억원 확보 무안국제공항 외래객 유치 쇼핑·음식·숙박 완결형 관광 실현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9곳이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한민국 글로벌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이 가능한 핵심·연계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외래객을 유치, 남도에서 쇼핑과 음식, 숙박 등 지역완결형 관광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중 하나인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의 투자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원을 포함해 총 214억원이다. 이 가운데 4개 사업(24억원)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직접 수행한다. 여기에 문체부를 비롯 9개 부처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업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사업은 내년 단년도 추진 사업이지만 문

체부는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광 현업 종사자와 유관기관·단체, 대학 등을 망라한 50여 명 규모의 민·관 협의체 및 실무협의회를 신속하게 구성, 협력주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오는 23일 첫 회의가 열린다. 이 사업을 통해 비교우위 자원을 부각하고, 교통과 숙박, 쇼핑 기반을 보완해 하나의 스마트플랫폼으로 연결, 블루 투어 국제관광지로 우뚝 선다는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5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음식, 해양·섬, K-pop의 원류인 판소리 등 전통문화, 정정 생태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목적

지로 세계화한다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으로는 1포트(Port), 2허브(Hub), 3스포크(Spoke)가 제시됐다. 1포트는 인천국제공항 대체공항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연결되는 무안국제공항이다. 2허브는 관광거점도시 목포와 스마트관광도시 여수, 3스포크는 두 허브가 있는 전남과 광주, 전북을 확장한 개념으로 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완결형 국제관광 모델이다. 주요 타깃 국가는 중국·대만 등 중화권과 일본,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무안공항 국제선 다변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숙박·음식 등 모든 관광요소를 예약·결제할 '전남관광플랫폼' 구축, 가장 한국다운 경험을 할 관광콘텐츠 및 숙박시설 운영, 쇼핑 관광 활성화 등이다. 김병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관광장은 "무안공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멀어 정부의 외래객 지역 분산 정책기조에 적합하고, 타깃시장인 동남아로부터 가장 가까워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의 최적지다"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 전남에 산재한 가장 한국다운 관광자원을 잘 켜어 외래객 5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개청 이윤선 광주시장이 15일 서구 유촌동에 위치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서대석 서구청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부의장,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연구원 등과 코로나19 극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내년 건강·복지에 국비 2조1000억 투입

심뇌혈관센터·의료원 음압병상 등 도 국비 예산 7조6671억 중 27%

전남도는 내년 국립심뇌혈관센터,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등 지역현안이 대거 반영된 국비 2조107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비는 내년 전남도 국비 예산 총 7조6671억원 중 27%에 해당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총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와 장성군이 전담병원 등과 협력해 추진해왔으며 장성 나노산업단지 내 연구소, 임상병상 등을 건립할 국책사업이다. 이 센터는 전국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함께 국내 심뇌혈관질환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구성적 역할을 할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비 26억원을 확보해 순천·강진의료원에 음압격리병상을 각각 4병상, 3병상씩 총 7병상을 추가 확충하

기로 했다. 내년까지 기존 병실을 포함 총 15실의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복합 추진방식의 친환경 병원선 구축을 위해 국비 41억원도 확보해 2022년까지 국·도비 총 127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친환경 병원선은 최신행 의료시설과 장비가 탑재돼 진료·검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전남 동부권 5개 시·군에 소재한 77개 도서, 5000여 명의 섬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원격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편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비로 국비 995억원 등 총 1982억원을 투입, 노인일자리 5만354명과 장애인일자리 2014명 등 모두 5만2368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노인일자리 3594명, 장애인일자리 158명이 확대된 규모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내년 의과대학 설립과 한약재 기증센터 연구센터 등 전남도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악재에도...전남도, 245개 기업과 투자 협약

11월말 기준...민선 7기 677개와 협약 1000개 유치 눈앞

전남도가 민선7기 들어 현재까지 677개 기업을 유치해 1000개 유치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활동으로 11월말 기준 24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민선 7기 총 677개 기업(18조 8000억원 규모)과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은 데다 기업방문 투자설명까지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온택트) 투자유치 설명회, 소규모 간담회, 전화·화상 상담 등 전남 투자 매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에 힘입어 협약 체결을 이끌어

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첫 시도한 비대면(온택트) 투자유치 설명회는 바이오의약, 에너지신산업, 이차전지, 지식정보문화산업 등 각 분야별 산업 투자여건과 투자기업 인센티브 등을 알리고, 도·기업·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으로 기업들의 만족감을 높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로나 시대 변화된 산업 트렌드와 정부정책에 맞춰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유치를 위해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선제적으로 마련

하는 등 타시도 우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 주요 프로젝트를 활용해 산업별 치밀한 분석과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에너지·바이오·드론 등 미래형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배택휴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심화 등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가진 비교우위 자원과 확대 개편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한 유치활동으로 첨단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 산업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4명 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김나윤·신수정·이경호·이홍일 의원

광주시의회 김나윤·신수정·이경호·이홍일 의원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한중)가 주관하는 '제9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해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김나윤(북구 6)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민과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수정(북구 2) 의원은 복지분야 전문가로, 어르신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분야의 복지 현안을 정책화하고 광주형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논의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경호(북구 3)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유치원 비리문제 및 교사들의 처우 개선' 촉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문제' 제기 등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홍일(동구 1) 의원은 재건축·도시환경·옥외광고물분야 정책 등의 심대 파악과 개선 방안 제시 등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국공립시설 공공운영

공공이 책임지는 시설 운영으로
소속 시설 품질 향상, 복지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보급

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틈새돌봄 지원
살던 곳에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지원

법률·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